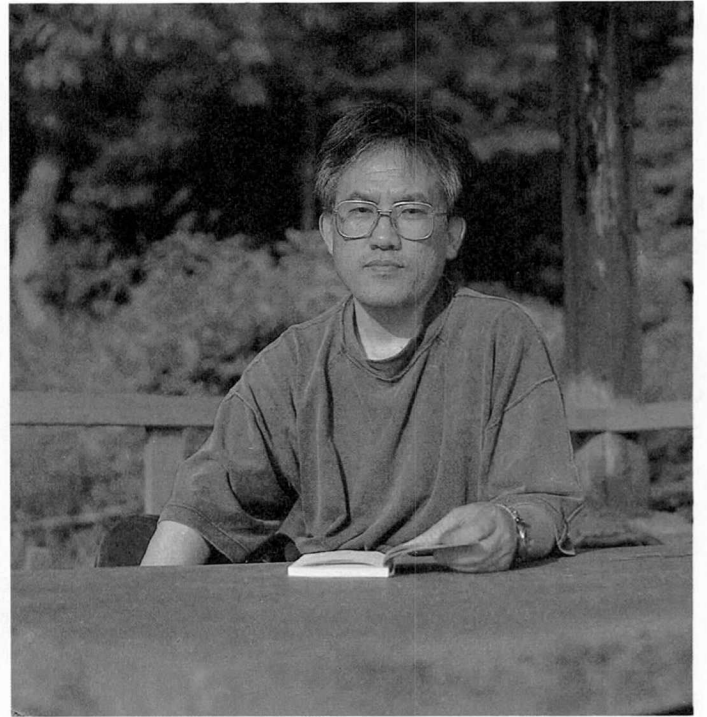


그저 망연히 앉아도 좋은 곳

미술평론가 吳光洙씨의 書架



1938년 부산 출생. 홍익대 미술학부 회화전공. 1963년 동아일보 신춘문에 미술평론부문 당선. 「공간」 편집장, 한국미술대상전·동아미술제 심사위원 등 역임. 현재 「현대미술」 주간. 저서 「한국현대미술사」 「전환기의 미술」 등.

집안에서도 서재는 가장 내밀한 공간에 속한다. 혼자만의 사유의 즐거움을 가질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이다. 세상과 부대끼는 생활의 물결에서도 잠시잠시 돌아올 수 있는 혼자만의 공간이 있다는 것이 여간 위로가 되지 않는다.

서재는 보통 책을 읽고 글을 쓰는 방으로 알고 있지만, 책을 읽지 않고 글을 쓰지 않고 그저 망연히 앉아 있어도 괜찮은 곳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서재에 들어오면 책을 읽는 시간보다, 글을 쓰는 시간보다 오히려 낯나간 사람처럼 물끄러미 창밖을 내다보기도 하고 서가에 꽂힌 책들을 훑어보고 하고 그러다가 꼬박꼬박 즐기기도 하는 시간이 더 많다. 그러니까 창조의 장소라는 거창한 개념은 애초 나에게겐 걸맞지 않다. 좋게 말해서 휴식의 공간이다.

서가를 바라보면서 나의 교양의 영역이 대단히 빈곤함을 깨닫곤 한다. 전공(미술이론)을 제외하곤 문학, 사상, 역사 등 비교적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의 책도 몇권 되지 않는다. 나의 휴식의 공간도 그저없이 초라함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